

사라져가는 올망졸망 작은 습지들¹⁾

고 평 열²⁾

제주대학교 식물병리학실험실 연구원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동네, 내 고향 대정읍에 있는 작은 습지들은 조사된 자료가 없었다. 무엇 때문인가 습지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느낀 거였다. 왜지?

람사르습지가 있는 지역, 해안습지, 용천수 등에 대한 조사들은 간혹 주제별로, 또는 지역별로 검색이 되거나 자료가 더러 있었으나, 우리 동네처럼 해안가가 아니어서 빗물에 고인 봉천수를 먹고 살았던 동네의 습지는 전혀 존재하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돗물을 먹기 전에 물허벅을 등에 지고 물을 길러 다녔던 알동네 생이물, 봉개통, 옷동네 산물코지도 잘 있을까 궁금해졌다.



사진 1.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메워진 올레물



사진 2. 빨래하고 목욕하던 한질물 터

우리 집 들어가는 정낭³⁾ 입구에 연못이 두 개 있었다. 작은 연못 두 개로 이루어진 올레물⁴⁾은 지하수를 뽑아 먹지 못했던 시절, 온 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50 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미꾸라지를 잡고 빨래하던 한질물이 있었다. 가까이 물

1) Little Wetlands Disappearing

2) KO, Pyung-Yeol, Faculty of Bioscience and Industry, College of Applied Life Sciences, The Research Institute for Subtropical Agri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3243, Korea

3) 옛날 제주식 대문

4) 옛 모습은 기억 속에는 있으되 사진이 없다. 안타깝게도 거의 메워져 버린 현재의 모습 뿐이다.

통이 있었던 덕분에 허벅을 지지 않고 양동이로 길어다 먹을 수 있어서 물허벅을 젖던 기억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가뭄이 들어 올레물통 두 개가 다 말라버리면 그 중 가까운 봉개통으로 물을 길러 갔고, 여기까지 말라버리면 알동네 생이물까지 한참 걸어가야 했다.



사진 3. 신평리 생이물



사진 4. 신평리 산물코지

내가 중학생 되던 즈음에 동네에 공중수도가 설치되고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왔다. 자연히 물색이 탁했던 올레물은 소에게 물을 길어다주는 용도 이외에 사용처가 없는 버려진 물이 되었다. 우리집 남매들은 올챙이를 잡다가, 또는 물장난을 하다가 가끔 연못에 빠져 혼 줄이 나곤 했다. 혹여 큰일 날까 싶은 아버지는 밭에 농약을 칠 때 사용할 물을 쓸 정도의 웅덩이만 남기고 다 메워버렸다. 시간이 세월로 바뀌어가면서 물에 빠져 죽을 거 같았던 경험도 다 추억이 되어 갔다.

기억 속에 있는 생이물은 참 작고, 습지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했다. ‘생이’는 제주에서 ‘새’를 말함이니 연못이 작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거 같았다. 물이끼를 걷어내면 깊은 산속 웅달샘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고여 있었다.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아 작은 용천수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산물코지는 작은 궤⁵⁾ 속에 존재하는 작고 맑은 물웅덩이였다. 궤의 천정에서 한 두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고여서 바가지로 겨우 떠 마실 만큼씩만 고였다. 마르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넘치지도 않았다. 물을 마시려고 꽤 속에 들어가면 한여름엔 한기에 몸이 떨렸고, 한겨울엔 김이 서릴 만큼 따뜻했다.

40여 년이 흘렀다.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

기억 속에 있던 연못들이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리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 속에 있던 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현재의 모습을 담아 두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이제라도 조사를 해 두고 사진으로 남겨두면 몇 십 년 후엔가는 조사 자료가 남을 것이니까 말이다.

5)작은 동굴



사진 5. 신평리 봉개통



사진 6. 장전리 공새미통

그런 이유로 그렇게 습지 조사를 시작했다. 조금씩, 일 년에 한 읍면씩 꼼꼼하게, 이미 메워져 사라진 습지와 남겨진 습지, 그리고 사람들의 손을 타서, 혹은 잊혀져서 변해가는 습지들을 기록하고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인이 되어 걸어보니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생이물은 사유지의 밭 안 한 켠에 위치해서 돌로 정비하고 농장에서 사용하는 개인 우물처럼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산물코지는 궤를 허물고 물을 뜨기 좋은 작은 우물처럼 개조해 놓았다. 안타까웠지만 그나마 다 메워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사진 7. 서광서리 동산물



사진 8. 감산리 고래소

대정과 안덕, 한경과 한림을 거쳐 애월까지 지난 5년간 곳곳의 습지들을 조사하다보니 읍면별로, 마을별로 습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은 다양했다.

마을의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고려해서 대부분의 습지를 메우지 않고 마을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서광서리가 인상적이었다.

창고천이 가까이 흐르는 감산리, 창천리 등의 마을들은 하천 내에 흐르다 소 형태로 고

인 물들을 이용했다. 보호지역이 되어 있어 매워질 수 없는 하천은 자연 그대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고래소와 같은 몇몇 습지는 지역 원로의 안내 없이는 찾아갈 수 없을 만큼 노출되지 않은 원시상태로 남아 있으나 구간구간 개발되고 있어 곧 관광명소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마을들은 마을의 역사가 담긴 유서 깊은 습지들을 이미 상당수 매립한 상태이며, 방치되고 있는 습지들은 이후에도 매립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 9. 금악리 정물(안경섬)



사진 10. 고성리 진수못

금악리 일대는 봉천수 및 용천수가 많이 분포하여 예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로 부촌을 이루고 있었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도 매립 시킨 습지가 거의 없이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습지를 보존하려는 노력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마을 주민들의 관심사와 마을 리더인 리장의 리더십이 습지를 지키려는 의지가 뚜렷하였던 게 인상적이었다. 옹포리 협재리 등 관광지로 개발이 많이 된 마을은 대부분 매립되어 있어서 과거 수량이 풍부하고 마을의 설촌과 이어진 습지들도 거의 매립의 흐름을 피해가지 못하였다.



사진 11. 쇠물닭 알



사진 12. 참개구리

감동이였다. 한경면 신도리의 맨처남물에서 만난 쇠물닭은 스텝 조각을 물위에 띄우고 알을 낳아 품고 있었다. 조사팀이 도착하자 깜짝 놀라 몸을 숨기긴 하였으나 알이 있는 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그저 그렇게 메워 버리고, 농약 쓰던 통들을 씻으며 오염시키는 것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자행하지만, 작더라도 건강한 습지들이 존재해야 맹꽁이도 살고 산새들이 물을 먹고 살겠구나 하는데 생각이 닿았다. 이기적이게도 그동안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다. 수도꼭지를 틀지 못하는 인간 이외의 생물들도 물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습지의 훼손은 커다란 삶의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습지의 동물상 조사는 습지 주변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곳이 현재 이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오염되어 있어 다양한 동물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봉천수의 경우 습지 내의 소금쟁이류, 잠자리류와 습지 주변부의 나비류, 딱정벌레류 등 흔하게 관찰 가능한 곤충류가 주로 조사되었고 양서류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참개구리가 산란시기인 4~6월 여러 습지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금약리 금오름 정상에 위치한 압매와 새샘이물에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였고, 상대리의 고한이뚝의 경우 생태계교란종인 왕우렁이가, 월림리의 물거리물에서는 붉은귀거북이, 습지에 마름이 있는 경우 일본마름잎벌레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약리의 새미소, 협재리의 사장물과 같은 경우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등의 조류가 먹이활동을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습지의 환경 친화적 정비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습지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3. 구엄리 모감동 습지



사진 14. 물고 또 물고

실리적인 걸 중시하는 어떤 마을들은 대부분의 습지를 메우고 난 자리를 쓰레기 매립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재사용 하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물었다. 남아있는 습지들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마을의 역사 속에

서 어느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지, 마을이 만들어질 때부터 먹었던 물은 어디 있는지..

지역마다 조사된 습지 중 대부분이 현재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더라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오염된 곳이 많았으며 현재 메워져 있는 곳도 많았다.

보존이 된 습지 중 초기에는 시멘트로 습지 가장자리 처리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연석을 이용한 복원이 대부분 정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휴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의자들이 같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였다.



사진 15. 장전리 쇠갯물



사진 16. 동일2리 무덤질물

이용도가 떨어진 연못들은 가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방치되어져 갔다. 때론 사람들의 생명수였고, 우마들의 식수원이었던 크고 작은 연못들은 중요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저 쉽게 매립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는 잔존하고 있는 습지에 대한 보전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사진 17. 수산리 기우제연못



사진 18. 애월리 족은물

마을마다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특별한 연못들도 있다. 기우제를 지내는데 쓰였다는 기우제연못은 수산봉 꼭데기에 존재한다. 오름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매우 소중히 다루어져 왔다.

보통 용천수라 하면 해안가에 솟는 물만 생각하기 쉽다. 나도 그랬다.

크고 작은 용천수들이 마을 안에서도 존재했다. 마을사람들은 용천수는 땅에서 솟는 맑은 물이라고 ‘산물’이라 하고 빗물이 고운 봉천수는 물색이 탁하다고 ‘죽은물’이라 했다. 마을제를 지내거나 제사 등 경건한 행사를 지낼 때는 멀리 있더라도 산물을 길어다가 사용했다. 봉천수의 물빛은 흐리고 탁하지만 용천수는 물빛이 투명하고 차가웠다.



사진 19. 수산리 장수물



사진 20. 가파도 고망물

수산리의 장수물은 한 뼘 남짓, 가파도의 고망물과 더불어 우리가 만났던 가장 작은 연못이다. 작지만 용천수여서 떠먹고 나면 또 그만큼 채워진다. 마을사람들의 생명수였으나 이젠 야생동물의 생명수로 아직도 존재한다.



사진 21. 애월리 큰물



사진 22. 일加里 장수원

간간이 선인들이 쓰던 원형 그대로의 용천수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 다소 영성하고 소박하게 돌을 쌓아두었지만, 돈을 들인 습지들처럼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해안가의 봉천수도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발라 곱게 단장한 용천수는 대부분 썩어가거나 쓰레기만 넘쳤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이 중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이다. 해안가의 용천수는 해안선의 경계에 위치하여 간조시에는 단물이 나오고 만조시에는 짎물로 덮인다.



사진 23. 어음리 돛배물



사진 24. 애월리 동가름물

그나마 유지시키려는 노력들이 돋보이는 연못들도 있다. 최근 관심도의 흐름을 반영해 정원 속의 연못처럼 깔끔하게 단장해서 휴양시설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가끔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써서 습지가 제 모습을 잃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 25. 유수암리 물거리물



사진 26. 유수암리 좌랑못

애월읍은 대정읍이나 한림읍 습지와 달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습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생태연못을 가꾸고는 있으나 이용도가 거의 없는 습지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웠다.

습지의 식물상은 습지 내에 서식하는 수생식물과 습지 주변부에 서식하는 식물로 구분된다. 사람들이 이용해오던 습지들이며 접근이 용이한 길가 이주로 습지가 분포하는 까닭에 서양금혼초, 유럽개미자리, 서양민들레, 개쑥갓, 국화잎아욱, 유럽장대 등의 귀화식물들이 다수 습지 주변으로 분포하였다.



사진 27. 어리연



사진 28. 보라별꽃

이시돌목장과 양돈 양축농가들이 많이 분포하는 금악리 일대에는 특히 귀화식물의 출현 빈도가 높아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습지 내에 사는 수생식물로는 마름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갈대, 큰고랭이, 어리연꽃, 택사, 개구리밥, 쯤개구리밥, 애기가래, 네가래, 창포 등이, 식재종은 수련과 연이 분포하였다. 환경부보호대상식물인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식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습지식물은 다양한 습지동물이 깃들어 살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사진 29. 하모리 장갈못



사진 30. 인향동 구남못

어떤 습지들은 사방을 시멘트로 푹푹 발라서 나름 잘 정비한다고 해 놓았으나 적지 않은 규모인데도 녹조가 심하게 번성해 있고, 물속에 생명체의 흔적이 없다. 장갈못은 중학교 옆에 있어서 빗길을 걸어 학교에 닿으면 흙탕물이 튄 발과 신발을 닦고 교실로 입실 하던 연못이었다. 이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물이 되었다.

마을 안에 있어 주민들의 식수가 되어주던 용천수는 과거의 명성을 뒤로 하고 풀만 무성한 채 말라있다. 현대식으로 너무 잘 가꾸어져 가면서 용천수들은 원형을 잃어간다. 정비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보전 되는 건지, 방치되어 잊혀진 건지, 이리다 곧 매립되고 주차장 되는 건 아닌지...



사진 31. 감산리 통물



사진 32. 일과2리 서림물

제주도는 사계절 흐르는 하천이 드물고 대부분 건천이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던 습지는 주로 봉천수와 용천수다. 제주도의 마을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용출되는 용천수에 의지해서 형성되고 마을사람들의 생활터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산간 마을의 경우에는 주로 빗물이 고인 봉천수에 의지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왔다. 최근 지하수 이용이 일상화 되고, 집집마다 수도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예로부터 이용되어 오던 용천수는 용출량이 감소하거나 말라가고 있으며 봉천수는 메워져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올망졸망 고운 연못들은 함께 살아야 할 야생동식물들의 생명수이고, 역사 속의 귀중한 자원이며, 바빠 사는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필요 없어서, 또는 관리가 힘들어서 외면되던 습지들은 생태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그 가치가 인정되면서 하나 둘 씩 보전자원이 되어, 소박하고 정겨운 이름을 간직한 채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미 메워져버리고 훼손이 심한 습지들은 어찌나.



사진 33. 소길리 고드레물



사진 34. 다시 걷고 싶은 '고드레물 가는 길'

소길리의 고드레물은 연못 자체보다는 연못까지 가는 길이 주변 밭보다 살짝 높여서 만들어지고,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길로 만들어져 있다. 마을단위 올레길로 보전하고 있어서 그동안 조사했던 습지 들 중 다시 찾고 싶은 연못 1번이 되었다. 최근 제주로의 유입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늘면서 해안도로의 용천수에 관심을 갖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고, 용천수나 봉천수 포스팅을 하는 SNS인구들이 늘어나면 소규모의 습지지만 이러한 습지를 활용하여 개인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또 하나의 여행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